

조선대,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 개소

12년간 2만2000명 대상 연구 데이터 활용 전문 AI닥터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산업화

조선대학교는 최근 12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융합관에서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을 개소했다.

12일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연구단은 지난 12년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정밀검진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해온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코호트연구단은 지금까지 2만명 이상의 광주시민을 검사했고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방대한 규모의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여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노인성 뇌질환 전문 AI닥터 개발 등을 수행할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을 개소했다.

조선대 제공

코호트연구단은 이를 토대로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고령 한국인 표준 뇌지도 구축, 동양인 특이 치매 유발 유전인자 발

굴, 치매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범용적 치매예측기술 개발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새로 출범한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

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치매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노인성 뇌질환 전문 AI닥터 개발에 착수한다.

이에 신의료기술의 상용화에 필수적인 임상실증과 허가임상시험에 적합한 대상자를 빠른시간 내 모집하고 성공률을 2배 이상 높일 예정이다.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인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기술의 산업화를 돕는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이다.

조선대 김춘성 총장은 “세계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치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건호 단장을 비롯한 연구진의 오랜 노력으로 탄생한 노인성뇌질환실증연구단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지난 12년간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노인성뇌질환의 진단과 치료 분야를 이끌어 갈 세계적인 연구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4년 9개월 동안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18억원이다.

노병하기자

조선대병원 따뜻한 위로와 희망 전시회 ‘눈길’

‘친근한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 미술대학 재학생 작품 32점 전시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11일 병원 1관 중앙계단에 위치한 ‘달팽이 갤러리’에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함께 미술로 ‘친근한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Art Therapy: 마음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는 데 미술을 통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 친근한 병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술대학 재학생들에게 예술적 역량 촉진과 전시기회 제공에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술대학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중단하지 않고 세 번째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재학생 28명 32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를 통

해 지역 예술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심는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기념사에서 조선대병원 김진호 병원장은 “이번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예술 치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음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전시회의 주제처럼 각 작품에 담긴 저마다의 감정과 경험이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운성 조선대 미술대학장은 축사에서 “예술적 열정이 깃든 30여 점의 작품이 치유의 힘을 전하고 병원에 새로운 생명력과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술과 의료가 만나 인간적인 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함께 환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뜻깊은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작품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노병하기자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한국도 변경해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서구형 체질로 변모 기준 25→27로 성인 847만명 21년간 추적 후 제시

대한민국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BMI)는 25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체질량지수(BMI)는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합한 기준을 제시했다.

BMI와 총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는 공통으로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태를 나타냈다. 관찰 시작 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 BMI 25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BMI 18.5 미만과 35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BMI 25 이상에서 사망 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 위험 증가폭이 2배 커진 것을 확인했다.

BMI와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는 BMI가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비만협회 등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BMI 25 이후부터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질환의 위험도를 고려해

비만 기준을 BMI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BMI 27 구간, 심혈관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질병 발생 위험 증가폭이 커졌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은 만성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성이 높은 비만 연구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BMI 23이 가장 낮은 사망 위험 구간이었지만 체형과 생활 습관, 질병 양상이 서구와 달라지면 BMI 25로 이동했다”면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 비만 진단 기준은 BMI 27로 상향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